

저자 (Authors)	이현주 Lee, Hyun-ju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56</a> , 2020.6, 83-111 (29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6</a> , 2020.6, 83-111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957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9577</a>
APA Style	이현주 (2020). 신라 하대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 - 경문왕가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 56, 83-11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24 13:5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하대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

## - 경문왕가를 중심으로 -

이현주\*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의 상관성 |
| II. 경문왕가의 성립과 왕위계승 양상  | V. 맺음말               |
| III. 헌강왕계의 왕위계승과 ‘義父母’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헌안왕은 문성왕의 유조에 의해서 즉위하였고, 경문왕은 헌안왕의 유조에 의해서 즉위하였다. 또한 헌안왕의 왕비는 선강왕의 딸이고, 경문왕의 딸은 헌안왕의 딸로서 모두 왕녀이다. 헌안왕과 경문왕의 혼인과 즉위는 예영계와 인겸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에 이르기까지 격화되었던 예영계와 인겸계 간의 왕위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경문왕 이후의 왕위계승은 嫡長子, 同母弟, 同母妹, 庶子, 女壻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경문왕가의 성립은 경문왕과 영화부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적통계승자인 헌강왕을 중심으로 헌강왕계의 형제, 자매, 서자, 사위가 계승하였다. 헌강왕계의 왕통은 왕위의 정통성의 근거로 작용하였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지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헌강왕의 왕비인 의명부인은 ‘義母’로서 효공왕의 즉위를 지지하였고, 헌강왕대의 시중이었던 예겸은 ‘義父’로 신덕왕의 즉위를 지지하였다.

헌안왕부터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왕녀 출신의 왕후 및 태후의 존재가 다수 보인다. 신라 하대 태후의 혈연적 정통성은 왕위계승에 영향을 미쳤다. 즉 왕녀출신의 왕후와

\*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시간강사

태후는 왕통의 계승을 매개하고,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신라하대 태후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주제어** ● 현안왕, 경문왕, 헌강왕, 왕녀, 왕후, 태후, 왕위계승, 왕실여성, 양계적 친족구조

## I. 머리말

신라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신라 하대의 왕통은 원성왕가와 경문왕가를 중심으로 하대 전기와 하대 후기로 나뉜다.<sup>1)</sup> 신라 하대는 왕계를 중심으로 가계의 분지화가 이루어졌고, 각 가계별로 정치 세력화하였다.<sup>2)</sup> 이로 인해 하대 전기의 왕위계승은 쟁탈전으로 격화된 양상을 보였다.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에서 왕위계승의 유형을 태자책봉, 遺詔, 篡奪, 推戴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혈연적 親疏에 따라 부계친의 남자를 중심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sup>3)</sup> 왕위계승의 순서는 子, 嫡孫 순이었고,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弟, 叔父, 姪, 女壻의 순이었다는 것이다.<sup>4)</sup> 이는 왕위계승의 원칙이 부계친의 적장자계승이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반면 부계혈족집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子·女·女壻·親孫·外孫의 친족원이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견해도 제시되었다.<sup>5)</sup> 최근

1) 신라 하대는 정치세력의 변동에 따라 2시기와 3시기, 또는 4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정치변동에 따라 왕권쟁탈기(선덕왕~정강왕)와 지방세력의 자립기(진성왕~경순왕)로 구분하거나(井上秀雄, 『新羅政治體制の變遷過程』,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 1974, p.427), 헌덕왕 14년(822)의 김현창의 난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의 2시기로 구분하였다(주보돈, 『통일신라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1994, p.332). 또는 정치변동과정을 세분화하여 초기(선덕왕~신무왕)·중기(문성왕~헌강왕·정강왕)·말기(진성왕~경순왕)의 3시기로 보거나(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pp.179~180), 또는 초기(선덕왕~민애왕)·중기(신무왕~진성왕 2년)·말기(진성왕 3년~경순왕)의 3시기로 구분하였다(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 혜안, 2011, p.180). 또한 왕통과 정치세력의 변화를 근거로 I기(선덕왕~흥덕왕), II기(희강왕~현안왕), III기(경문왕~효공왕), IV기(신덕왕~경순왕)의 4시기로 구분하였다(金昌謙, 『新羅下代王位繼承研究』, 景仁文化社, 2003, pp.336~340).

2)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p.181; 186; 189; 190.

3) 金昌謙, 앞의 책, 2003; 최의광, 『新羅下代王位繼承樣相과 性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 이기백, 앞의 책, 1974; 김창겸, 앞의 책, 2003; 최의광, 앞의 논문, 2013;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2015.

신라 왕위계승의 특징적인 요소로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주목하기도 하고,<sup>6)</sup> 경순왕이 전왕의 ‘族弟’라는 부계적 혈통을 통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한 측면을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7)</sup>

경문왕 이후, 적장자의 왕위계승은 단 두 차례뿐이다. 경문왕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헌강왕과 신덕왕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경명왕이 그들이다. 이들 두 명을 제외하고, 적자, 형제, 女弟, 서자, 사위로 왕위가 계승되었다. 특히 서자로 왕위를 계승한 효공왕과 박씨로 왕위를 계승한 신덕왕은 예외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효공왕의 즉위 배경과<sup>8)</sup> 신라 말 박씨왕의 등장 배경에 대한 연구가<sup>9)</sup> 다수 이루어졌으나, 왕위계승의 원리보다는 왕권과 정치세력의 추이에 치중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왕위계승의 양상에 대해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왕위계승에서 보이는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왕위계승과 왕실여성의 상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왕위계승권과 관련하여 왕실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고찰할 것이다. 헌안왕부터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왕녀 출신의 왕후 및 태후의 존재가 다수 보인다. 이들이 왕위계승에 미친 역할을 살펴보고, 신라 하대에 태후의 지위가 강화되는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우선 경문왕가의 성립 배경과 헌강왕계의 왕위계승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효공왕의 즉위와 신덕왕의 즉위 과정에서 살펴보고, ‘義父母’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에서 ‘왕녀’

5) 최재석, 『新羅 王室의 王位繼承』,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하정룡, 『新羅 上代 王位繼承 研究-王室內 近親婚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2, 1995.

6) 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分枝化’에 대한 재검토-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127, 2017.

7) 이천우, 『신라 경순왕의 즉위를 통해 본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혈연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4, 2019.

8) 金昌謙, 『新羅 下代 孝恭王의 卽位와 非眞骨王의 王位繼承』, 『史學研究』 58 · 59, 1999; 2003 재수록; 『신라 憲康王과 義明王后, 그리고 ‘野合’과 孝恭王 - 특히 신라말 ‘非眞骨王’의 등장과 관련하여 -』, 『신라사학보』 22, 2011; 李文基, 『최치원(崔致遠) 찬(撰)9세기 후반 불국사(佛國寺) 관련자료의 검토』, 『신라문화』 26, 2005; 『新羅 孝恭王(曠)의 出生과 王室의 認知時期에 대하여』, 『新羅文化』 30, 2007a; 『新羅 孝恭王(曠)의 太子冊封과 王位繼承』, 『歷史教育論集』 39, 2007b;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재수록; 선석열, 『신라 하대 효공왕의 헌강왕 서자설 재검토』, 『석당논총』 62, 2015; 김수태, 『신라 헌강왕대 국왕 친영례의 변화』, 『신라문화』 45, 2015.

9) 李鍾恒, 『新羅의 下代에 있어서의 王種의 絶滅에 대하여』, 『法史學研究』 2, 1975; 文暉鉉, 『新羅 朴氏의 骨品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 13 · 14합집, 1990; 李明植, 『新羅末』 朴氏王代의 展開와 沒落』, 『大邱史學』 83, 2006;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朴氏王家』, 『韓國民族文化』 31, 2008; 『新羅의 멸망과 景文王家』, 혜안, 2010 재수록; 조범환,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의 性格』, 『歷史學報』 129, 1991; 『중세로 가는 길목 신라 하대사』, 새문사, 2018 재수록.

출신 왕실여성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왕실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경문왕가의 성립과 왕위계승 양상

### 1. 경문왕가의 성립 배경

헌안왕은 신무왕의 異母弟이다. 아버지는 김균정이고, 어머니는 照明夫人으로, 宣康王의 딸이다.<sup>10)</sup> 선강왕은 인겸의 아들이자, 소성왕, 헌덕왕, 흥덕왕의 동생이고, 민애왕의 아버지이다.<sup>11)</sup> 헌안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카인 문성왕의 遺詔에 의해서였는데,<sup>12)</sup> 헌안왕의 부계는 원성왕-예영-균정-헌안왕으로 이어지고, 모계는 원성왕-인겸-충공-조명부인으로 이어진다. 헌안왕과 조명부인의 혼인은 예영계와 인겸계의 결합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sup>13)</sup>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에 이르기까지 예영계와 인겸계 간의 왕위쟁탈전이 격화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헌안왕의 혼인과 즉위는 왕위쟁탈전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지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문왕의 혼인과 즉위 역시 주목된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A-1) 헌안왕 4년(860), 가을 9월에 왕이 臨海殿에 여러 신하들을 모이게 하였다. 왕족 膺廉은 15세의 나이로, 자리에 참석하였다. (중략) 왕이 듣고 가만히 있다가 왕후에게 귓속말로 말하길,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응렴만한 이는 없었다.” 하고는, 딸을 妻로 삼게 하고자 하여 돌아보고 말하길, “그대는 몸을 아끼길 바란다. 나에게 딸 자식이 있으니 그대의 배필로 삼게 하겠다.” 라고 하였다. 다시 함께 술을 마시며 조용히 말하기를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兄]는 올해 스물 살이고 작은 아이[弟]는 열아홉 살이다. 그대 마음에 드는 대로 장가를 들라” 라고 하였다. 응렴은 사양하다가 마침내 일어나 감사의 절을 드리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가 말하기를 “듣건대 왕의 두 딸의 얼굴은 언니가 동생만 못하다고 하니, 만약 부득이하다면 그 동

10)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원년.

1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閔哀王 원년.

12)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文聖王 19년.

13) 김창겸, 『신라 憲安王之 卽位와 그 治積』, 『신라문화』 26, 2005 ;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재수록, p.124.

생에게 장가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A-2) 그러나 응림은 여전히 망설이며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興輪寺의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언니에게 장가들면 세 가지 이로우미 있을 것이고, 동생에게 장가들면 반대로 세 가지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응림이 곧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감히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큰 딸(長女)를 그에게 출가(出降)시켰다.<sup>14)</sup>

A-3) 경문왕 3년(863), 영화부인의 동생을 맞아들여 둘째 부인으로 삼았다. 그 뒤 어느 날 왕이 흥륜사 스님에게 묻기를 “대사가 전에 이르기를 세 가지의 유익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 당시에 왕과 왕비께서 당신들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하여 총애가 점점 깊어졌으니 이것이 첫째 이로우미이고, 이로 인하여 왕의 자리를 이었으니 이것이 둘째 이로우미이며, 마침내 처음부터 바라던 작은 딸에게 장가들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셋째 이로우미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 크게 웃었다.<sup>15)</sup>

A-1)~3)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경문왕이 즉위한 내력이다. 『삼국사기』의 A-1)~3)의 내용은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sup>16)</sup> 현안왕이 응림의 성품을 맘에 들어 했고, 그로 인해 사위로 맞고 싶어 했으며, 이후 사위인 응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응림의 혼인과 즉위가 의도치 않은 사건들의 연속인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A-1)에서 현안왕이 자리를 마련하여 왕족이자, 국선인 응림을 불러들였음을 알 수 있다. A-2)에서 응림은 현안왕의 제안을 부모 및 자제들과 의논하였고, 그 결과는 왕의 둘째 딸이었다. 이는 현안왕의 의중과는 다른 결론이었다. A-3)에서 응림은 흥륜사의 범교사와 의논하였고, 범교사는 강력하게 현안왕의 맏딸과 혼인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응림은 현안왕의 맏딸인 영화부인과 혼인하였던 것이다. A-3)은 경문왕이 첫째공주와 혼인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 흥륜사의 스님으로부터 3가지의 이로우미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듣는 내용이다. 즉 경문왕이 현안왕의 큰 딸과 결혼하여 첫째, 현안왕과 현안왕비를 기쁘게 하였고, 둘째, 왕위를 계승하였고, 셋째, 처음에 원하던 현안왕의 둘째딸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

14)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4년.

1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3年, “納寧花夫人弟爲次妃. 異日王問與輪寺僧曰, “師前所謂三益者, 何也.” 對曰, “當時王及王妃喜其如意, 寵愛浸深一也, 因此得繼太位二也, 卒得娶嚮所求季女三也” 王大笑”

16) 『三國遺事』 卷2, 紀異2, 48 景文大王.

안왕이 죽은 후, 경문왕이 현안왕의 遺詔에 의해 즉위하였다. 그런데 현안왕이 남긴 유조의 내용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다소 다르다.

B-1) 현안왕 5년(861), 봄 정월에 왕이 병으로 누운 것이 오래되자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과인이 불행하여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우리나라의 옛 일에 비록 善德과 眞德의 두 女主가 있었으나, 그것은 암탁이 새벽을 알리는 일에 가까우니 본받을 바가 못된다. 사위[甥] 응림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老成한 덕이 있다. 경들이 응립해 섬긴다면 반드시 祖宗의 아름다운 업적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니, 과인이 죽더라도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7)</sup>

B-2) 그 후 3개월이 지나자 왕은 병이 위독하여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짐은 男孫이 없으니 죽은 후의 일[窆窆之事]은 마땅히 장녀의 남편[長女之夫]인 응림이 계승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왕이 세상을 떠나니 낭이 遺詔를 받들어 즉위하였다.<sup>18)</sup>

현안왕이 죽은 후, 경문왕이 현안왕의 遺詔에 의해 즉위하였다. B-1)의 『삼국사기』에서는 아들이 없고, 여왕의 예는 본받을 바가 아니므로, 노성한 덕이 있는 사위 응림에게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였다. 반면 B-2)의 『삼국유사』에서는 아들이 없으므로, 장녀의 남편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현안왕의 두 딸을 女息, 長과 弟로만 일컫는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上公主와 第二公主의 칭호가 기록되어 있고, 上公主는 長公主로도 기록하고 있다.<sup>19)</sup> 응림이 왕위를 계승하였던 것은 현안왕의 딸 중에서도 ‘長女’와 혼인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보아 왕위계승 상에서 ‘長女’, 또는 長女の 壻, 즉 만사위가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아 ‘聚生’, 즉 출생 순서가 중요했던 것이다. 女壻의 왕위계승이 王女の 출생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계와 모계가 모두 중시된 양계적 친족구조를 기반으로 한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또한 응림이 왕의 사위가 되고, 왕위계승자가 된 것이 현안왕과 김계명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이었다고 보기도 한다.<sup>21)</sup> 또한 응림의 혼인과 즉위가 현안왕의 의도한 결과였다고 보거나,<sup>22)</sup> 계명과 응림이 범교사의 요구에 승복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sup>23)</sup> 또는 현안왕과 범교사로 대표되는 응림의 낭도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으

17)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5년.

18) 『三國遺事』卷2, 紀異2, 48 景文大王.

19) 『三國遺事』卷2, 紀異2, 48 景文大王.

20) 義江明子, 『古代王權論』, 東京: 岩波書店, 2011, pp.173~180.

21)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p.173.

22)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역사와 경계』 16, 1989, pp.5~6.

로 보았다.<sup>24)</sup> 계명과 응림은 아들이 없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곧 왕위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현안왕은 응림에게 공주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둘 중 누구와 혼인할 것인지 물어봄으로써 왕위계승자가 될 의사가 있는지 제안하였다. 응림이 부모의 권유가 아닌 범교사의 권유를 따른 것은 왕위계승자가 되겠다는 응림의 의지였다. 즉 경문왕이 즉위하였던 것은 현안왕의 의도와 응림의 의지가 맞물린 결과였던 것이다.

경문왕의 아버지인 김계명은 회강왕의 아들이고, 경문왕의 어머니인 광화부인은 신무왕의 딸이다.<sup>25)</sup> 흥덕왕 사후, 왕위를 두고 균정과 제룡이 쟁탈전을 벌였다.<sup>26)</sup> 결국 균정은 죽고, 제룡이 회강왕으로 즉위하는데, 회강왕 역시 김명의 반란으로 왕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sup>27)</sup> 김명이 민애왕으로 즉위하였으나, 김균정의 아들인 우정이 반란을 일으켜 민애왕을 죽이고, 신무왕으로 즉위하였다.<sup>28)</sup> 문성왕이 부왕인 신무왕을 이어 즉위하였는데,<sup>29)</sup> 이후, 숙부이자, 신무왕의 이복동생인 현안왕에게 유조로 왕위를 계승하였다.<sup>30)</sup> 흥덕왕 사후의 왕위쟁탈전은 제룡과 균정, 즉 회강왕계와 신무왕계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졌다. 회강왕의 아들인 김계명과 신무왕의 딸인 광화부인의 혼인이 안정적인 왕권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현안왕의 즉위에 이어 경문왕의 즉위 역시 왕위쟁탈전의 종식을 의도한 정략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문왕의 왕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C-1) 경문왕 원년(861), 景文王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膺廉이고<응림은 疑廉라고도 쓴다> 회강왕의 아들인 아찬 啓明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光和夫人<光義라고도 한다>이고, 비는 김씨 寧花夫人이다.<sup>32)</sup>

C-2) 제48대 경문왕, 김씨이고, 이름은 응림이다. 아버지는 啓明 角干으로 義恭大王

23) 김창겸,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p.845.

24) 張日圭, 『응림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 『신라사학보』 22, 2011, pp.185~186.

2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원년.

2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원년.

2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閔哀王 원년.

2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원년.

29)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文聖王 원년.

30)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원년.

31) 李基東, 『신라정치사학회사연구』, 일조각, 1974, p.173.

32)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원년.

으로 <懿라고도 한다> 追封되었는데, 즉 희강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신무왕(神虎王)의 딸이고, 光和夫人이다. 妃는 文資□后로 현안왕의 딸이다. 신사년에 즉위하여, 14년간 다스렸다.<sup>33)</sup>

C-3) 현강왕 원년(875), 현강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謁이고 경문왕의 太子이다. 어머니는 文懿王后이고, 妃는 懿明夫人이다. 왕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해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모두 입으로 외웠다.<sup>34)</sup>

C-4) 제49대 현강왕. 김씨이고, 이름은 謁이다. 아버지는 경문왕이고, 어머니는 文資皇后이다. 義明王后이라고도 한다. 을미년에 즉위하여, 11년간 다스렸다.<sup>35)</sup>

C-5) 경문왕 6년(866), 봄 정월에 왕의 아버지를 懿恭大王으로 추봉하고, 어머니 박씨 光和夫人을 光懿王太后로, 부인 김씨를 文懿王妃로 封했으며, 왕자 謁을 세위 왕태자로 삼았다.<sup>36)</sup>

C-1)과 2)는 경문왕의 계보에 관한 기록이다. C-1)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경문왕의 아버지는 희강왕의 아들인 아찬계명이고, 어머니는 光和夫人 <또는 光義>이다. 왕비는 김씨 寧花夫人이다. C-2)의 『삼국유사』에서는 경문왕의 妃는 文資□后라고 하였다. C-3)~4)는 현강왕의 왕계와 관련된 사료로, C-3)은 『삼국사기』이고, C-4)는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현강왕의 모에 대해서 C-3)은 文의왕후라고 하였고, C-4)는 문자황후라고 하였다. C-5)는 866년에 경문왕이 그의 부모와 왕비, 왕태자를 책봉한 기사이다. 경문왕은 그의 왕비를 文의왕비로 책봉하였는데, 이는 C-3)의 ‘文懿’와 일치한다. 따라서 C-4)의 ‘文資’는 ‘文懿’의 오기이거나, ‘同音異義’로 동일인물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C-1)의 영화부인은 C-2)~5)와 동일인물로, ‘문의’는 책봉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강왕은 경문왕과 文의왕후의 적자이고, 왕태자로 책봉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왕위계승자로서 정통성을 확보한 왕이었다.

요컨대 현안왕은 文성왕의 유조에 의해서 즉위하였고, 경문왕은 현안왕의 유조에 의해서 즉위하였다. 또한 현안왕의 왕비는 선강왕의 딸이고, 경문왕의 딸은 현안왕의 딸로서 모두 왕녀이다. 현안왕과 경문왕의 혼인과 즉위는 예영계와 인검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에 이르기까지 격화되었던 예영계와 인검계 간의 왕위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현강왕은 예영계와 인검계의 계승자였다.

33) 『三國遺事』卷1, 王歷, 第四十八 景文王.

34)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원년.

35) 『三國遺事』卷1, 王歷, 第四十九 憲康王.

36)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6년.

## 2. 헌강왕계의 왕위계승 양상

헌강왕은 경문왕의 적자이자 왕태자이다. 875년에 경문왕의 적장자이자, 태자인 정이 헌강왕으로 즉위하였다. 『삼국사기』에는 875년 7월에 경문왕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에서는 876년(헌강왕 2년) 봄에 경문왕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였다.<sup>37)</sup> 헌강왕 사후, 부계친의 적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 서자, 사위 등 다양한 왕위후계자가 등장하였다.

헌강왕 이후의 왕위계승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헌강왕 사후의 왕위계승은 동모제인 정강왕과 진성왕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D-1) 정강왕 원년(886), 정강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暉이고 경문왕의 둘째아들이다.<sup>38)</sup>

D-2) 정강왕 2년(887), 여름 5월에 왕이 병이 악화되자 시중 준흥에게 말하기를 “내 병이 위독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데, 불행하게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나 누이동생 曇은 천품이 명민하고 골격이 흡사 장부와 같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선덕왕과 진덕왕의 옛 일을 본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sup>39)</sup>

D-3) 진성왕 원년(887), 진성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曇이고 헌강왕의 누이동생[女弟]이다. <최치원 문집 제2권의 謝追贈表>에는 “臣 坦이 아뢰옵니다. 엇드려 칙지를 받자오니 죽은 아버지 凝을 추증해 太師로 삼고, 죽은 형 暉을 太傅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納旌節表에는 “신의 만형 국왕정이 지난 光啓 3년(887) 7월 5일에 갑자기 성스런 시대를 버렸고, 신의 조카 嶢는 아직 돌도 되지 않았는지라, 신의 둘째 형 暉이 임시로 나라를 다스리던 바, 또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멀리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자면 경문왕의 이름은 凝인데 본기에는 膺廉이라 하였고, 진성왕의 이름은 坦인데 본기에서는 曇이라 했다. 또 정강왕 暉은 광개 3년에 죽었는데 본기에는 2년에 죽었다고 하니, 모두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sup>40)</sup>

37) 崔鉉植, 『聖住寺 朗慧和尚塔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乾符三年春, 先大王不預, 命近侍曰, “亟迎我大暨王來.” 使至, 大師曰, “山僧足及王門, 一之謂甚. 知我者, 謂聖住爲無住, 不知我者, 謂無染爲有染乎. 然顧與吾君有香火因緣, 切利之行有期矣, 盍就一訣?” 復步至王居, 設藥言, 施箴戒, 覺中愈, 舉國異之. 既踰月, 獻康大王居翌室, 泣命王孫勛榮諭旨曰, “孤幼遭閔凶, 未能知政. 致君奉佛誦濟海人, 與獨善其身, 不同言也. 幸大師無遠適所, 居唯所擇.” 對曰, “古之師則六籍在, 今之輔則三卿在. 老山僧何爲者, 坐蝗蠹桂玉哉. 就有三言, 庸可留獻, 曰, “能官人””

38)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定康王 원년.

39)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定康王 2년.

D 사료는 『삼국사기』의 기사로, 정강왕과 진성왕의 즉위 관련 사료이다. D-1)의 정강왕은 경문왕의 둘째아들[第二子]이라고 한 반면 D-3)의 진성왕은 헌강왕의 누이동생[女弟]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정강왕이 민애왕의 동모제[母弟]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류임이 분명하다.<sup>41)</sup> E-2)에서 정강왕이 누이동생[妹]인 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이로 보아 정강왕은 경문왕의 아들로, 헌강왕의 동생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진성왕은 『삼국유사』에서 정강왕의 같은 어머니의 누이동생[同母妹]이라고 하여,<sup>42)</sup> 선왕과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즉위조와 『삼국유사』 왕력에서 선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왕을 기록하는 서술상의 특징에 부합한다.

D-3)에서 진성왕을 부왕인 경문왕의 딸, 또는 선왕인 정강왕의 동모제로 기록하지 않고, 헌강왕의 누이동생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D-3)의 納旌節表에서 진성왕은 정강왕이 즉위한 이유가 헌강왕의 아들인 요가 아직 돌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D-3)의 납정절표의 원문이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전문을 파악할 수는 없다. 납정절표에 따르면, 진성왕은 헌강왕 사후, 왕위계승의 우선권이 헌강왕의 아들에게 있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성왕이 요가 어려서 정강왕이 임시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일찍 죽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진성왕 역시 임시로 왕위를 맡은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즉 왕위의 정통성의 근거를 경문왕이 아닌 헌강왕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헌강왕의 정통성은 후대왕의 왕위 계승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효공왕은 서자로서 즉위한 유일한 왕이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E-1) 효공왕 원년(897), 헌강왕의 庶子이고 어머니는 김씨이다.<sup>43)</sup>

E-2) 제52대 효공왕. 김씨이고, 이름은 嶢이다. 아버지는 헌강왕이고, 어머니는 文資王后이다. 정사년에 즉위하여, 15년간 다스렸다. 師子寺의 북쪽에서 화장하고, 뼈를 仇知堤의 동쪽 산허리에 묻었다.<sup>44)</sup>

E-3) 겨울 10월에 헌강왕의 서자 嶢를 태자로 삼았다. 앞서 헌강왕이 사냥을 갔다가 지나는 길 옆에서 자태가 아름다운 한 여자를 보았다. 왕이 마음속으로 사랑하여 뒤쪽 수레에 태우게 해서 왕의 장막에 이르러 야합했는데, 곧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그가 장성하자 몸과 용모가 뛰어났고 이름은 嶢라 했다. 진성왕이 이 말을 듣고 안으로 불

40)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원년.

41) 『三國遺事』 卷1, 王歷, 第五十 定康王.

42) 『三國遺事』 卷1, 王歷, 第五十一 眞聖女王.

43)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원년.

44) 『三國遺事』 卷1, 王歷, 第五十二 孝恭王.

러들여 손으로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나의 형제자매는 골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데, 이 아이의 등 뒤에 두 뼈가 솟아 있으니 진실로 헌강왕의 아들이다”하고, 즉시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예를 갖추어 받들어 태자로 봉하고 공경하게 하였다.<sup>45)</sup>

E-4) 진성왕 11년(897), 여름 6월에 왕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근년 이래 백성이 곤궁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이는 나의 부덕한 탓이다. 어진 이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은 결정되었다”고 하고, 태자 요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문으로 아뢰기를 “① 신이 삼가 말씀드립니다. 義仲의 관직에 있는 것이 신의 본분이 아니고, 延陵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신의 좋은 방책인가 합니다. ② 신의 조카 嶢는 신의 죽은 형 정의 아들인 바, 나이는 바야흐로 15세를 바라보고 그 그릇됨이 종실을 일으킬 만하기에 밖에서 구할 필요 없이 안에서 천거했습니다. 근래 들어 이미 그로 하여금 번국의 일을 임시로 맡게 하여 나라의 재난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sup>46)</sup>

E-1)은 효공왕의 왕계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고, E-2)는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F-2)에서 효공왕의 어머니를 문자왕후라고 하였는데, 헌강왕의 모가 문자왕후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인다. E-3)은 진성왕이 헌강왕의 서자인 요를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다.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고, 야합하여 요를 낳았는데, 진성왕이 불러다가 태자로 삼았다는 것이다. E-4)는 진성왕이 태자 요에게 양위를 하고, 이를 당에 알리는 내용이다. E-4)의 讓位表는 최치원이 작성한 진성왕의 ‘양위표’<sup>47)</sup> 중 중요 내용을 소략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① 진성왕은 왕위를 감당하기 부족한데, ② 태자인 요는 헌강왕의 아들이고, 나이도 15세이므로 宗統을 이을 자격이 있으므로 양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진성왕은 헌강왕의 아들인 요를 정당한 왕위계승권자로 인정하고, 요가 성장할 때까지 왕위를 일시적으로 맡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효공왕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추대하여 신덕왕이 즉위하였다. 신덕왕은 신라 말의 첫 박씨왕이다.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F-1) 신덕왕이 즉위하였다. 성은 박씨이고 휘는 景暉이니, 아달라왕의 먼 후손이다. 아버지는 父兼<또는 父謙>이니 정강대왕을 섬겨 대아찬이 되었다. 어머니는 貞和夫

45)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眞聖王 9년.

46)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眞聖王 11년.

47) 서거정편, 최치원저, 『東文選』 43, 表箋, 讓位表.

人이고, 비 김씨는 헌강대왕의 딸이다. 효공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國人이 추대하여 즉위하였다.<sup>48)</sup>

F-2) 경명왕이 즉위하였다. 휘는 昇英이고, 신덕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義成王后이다.<sup>49)</sup>

F-3) 경애왕이 즉위하였다. 휘는 魏膺이고, 경명왕의 同母弟이다.<sup>50)</sup>

F-4) 경순왕이 즉위하였다. 휘는 傅이고, 문성대왕의 후손이고 孝宗 이찬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桂娥太后이다. 견훤이 세워서 즉위하였다.<sup>51)</sup>

F-5) 제53대 신덕왕. 박씨이고, 이름은 景徽인데, 본명은 秀宗이다. 어머니는 眞花夫人이다. 부인의 아버지는 順弘 角干인데, 시호를 成虎大王으로 추증하였고, 할아버지는 元弘 角干으로 何達□王의 세대가 먼 자손이다. 아버지는 父元 伊干이고, 興廉大王으로 추봉하였다. 할아버지는 文官 海干이다. 義父는 銳謙 角干이고, 宣成大王으로 추봉하였다. 妃는 資成王后이고, 懿成 또는 孝資라고도 한다. 임신년에 즉위하여, 5년간 다스렸다. 화장하여 뼈를 箴峴의 남쪽에 묻었다.<sup>52)</sup>

F-6) 제54대 경명왕. 박씨이고, 이름은 昇英이다. 아버지는 神德이고, 어머니는 資成이다. 왕비는 長沙宅으로 大尊 角干이며, 추봉된 聖僖大王의 子<sup>53)</sup>이다. 大尊, 즉 水宗 伊干의 아들이다. 정축년에 즉위하여, 7년간 다스렸다. 皇福寺에서 화장하여, 뼈를 省等仍山의 서쪽에 뿌렸다.<sup>54)</sup>

F-7) 제55대 경애왕. 박씨이고, 이름은 魏膺이다. 景明의 母弟이다. 어머니는 資成이다. 갑신년에 즉위하여, 2년간 다스렸다.<sup>55)</sup>

F-8) 제56대 경순왕. 김씨이고, 이름은 傅이다. 아버지는 孝宗 伊干으로, 神興大王으로 추봉하였다. 할아버지는 官□ 角汗으로, 懿興大王으로 봉해졌다. 어머니는 桂娥太后로 헌강왕의 딸이다.<sup>56)</sup>

F-1)~4)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이고, F-5)~8)은 『삼국유사』 왕력이다. F-1)과 5)는 신덕왕, F-2)와 6)은 경명왕, F-3)과 7)은 경애왕, F-4)와 8)은 경순왕의 기사이다. 신라 하대의 첫 박씨왕인 신덕왕이 즉위한 이후, 신덕왕의 아들인 경명왕과 경애왕이 즉위하였다. 이후 견훤이 김씨인 경순왕을 즉위시켰다.

48)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神德王 원년.

49)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景明王 원년.

50)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景哀王 원년.

51)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원년.

52) 『三國遺事』 卷1, 王歷, 제53대 神德王.

53) 子는 女의 誤記일 것이다.

54) 『三國遺事』 卷1, 王歷, 제54대 景明王.

55) 『三國遺事』 卷1, 王歷, 제55대 景哀王.

56) 『三國遺事』 卷1, 王歷, 제56대 敬順王.

신덕왕이 박씨인 점에 대해서 효공왕이 신덕왕의 누이를 왕비로 삼은 것을 계기로 성을 김씨에서 박씨로 바꿨다고 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sup>57)</sup> 이를 ‘改姓’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sup>58)</sup> 하대에 신라가 당과 교류할 때 왕모와 왕비의 성씨를 그 아버지의 가운데 이름자나 박씨로 알렸는데, 이는 신라의 왕실혼인이 김씨 간의 동성혼이었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59)</sup> 이 경우, ‘改姓’은 외교를 위한 편의에 따른 방편일 뿐이었고, ‘改姓’의 대상 역시 왕모 또는 왕비 개인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신덕왕가가 박씨로 개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1)에서는 신덕왕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소략한 반면, F-5)는 보다 상세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F-1)에서는 신덕왕의 부모와 처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는데, 특히 아버지는 예겸, 어머니는 정화부인이라고만 하였다. 반면 F-5)에서는 부계와 모계에 대해서 증조까지 기록하였고, 예겸이 친부가 아닌 義父라는 사실도 적시하였다. 신덕왕의 모계는 母인 진화부인-外祖父인 순흥 이간-外曾祖인 원흥 각각이고, 부계는 父인 부원 이간-祖父인 문관 해간이다. 신덕왕의 모를 F-1)에서는 ‘貞和夫人’이라고 하였고, F-5)에서는 ‘眞花夫人’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동일인물을 동음이의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F-5)에서 신덕왕의 외증조부가 아달라왕의 자손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60)</sup> 신덕왕의 부와 조부는 각각 이찬과 해찬이었던 것으로 보아 진골귀족으로, 김씨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덕왕이 2세기에 재위하였던 박씨왕인 아달라의 후손으로, 박씨를 칭했던 것은 모계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덕왕 이후, 그의 아들이 차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F-2)와 6)의 경명왕, F-3)과 7)의 경애왕은 同母의 형제간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인 F-1)에서는 신덕왕의 비는 김씨로 헌강대왕의 딸이라고만 기록하였고, F-2)에서는 경명왕의 어머니는 義成王后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F-5)에서 신덕왕의 왕비는 資成王后이고, 懿成 또는 孝資라고도 한다고 하였고, F-6)과 7)에서 경명왕과 경애왕의 어머니는 資成이라고 하였다. 신덕왕의 왕비이자 경명왕과 경애왕의 어머니는 의성왕후(또는 자성왕후)로, 헌강왕의 딸임을 알 수 있다. 신덕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대외적인 조건은 ‘헌강왕의 사위’라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효공왕대 정치세력의 지지, 즉 國人の 추대에 의한 것이었다.<sup>61)</sup>

57)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の成立』, 앞의 책, 1974, pp.321~374.

58) 이종항, 앞의 논문, 1975 ; 조범환, 앞의 책, 2018, pp.47~48, 각주 3).

59) 이현주,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신라사학보』 42, 2018a, p.385 ;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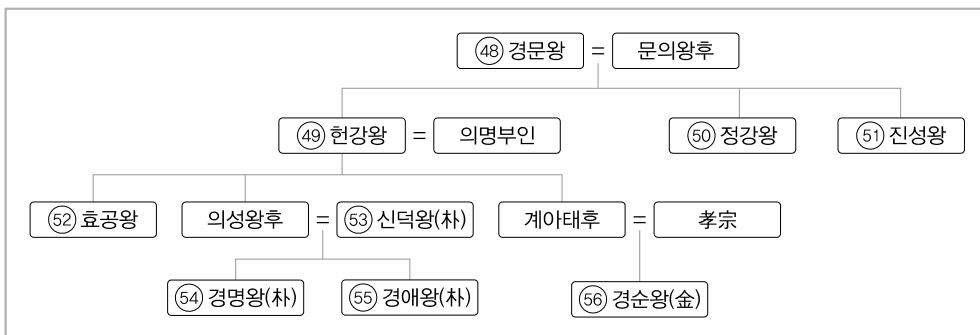
60)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369.

61) 효공왕 사후, 김효종과 박경휘는 헌강왕의 女壻이고, 효공왕과 처남·매부로 김씨왕실과의 관계가 동일한 조건이었다. 김효종이 아닌 박경휘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계강, 예겸, 모계 등의 지지세

또한 경순왕의 어머니 역시 헌강왕의 딸이다. F-4 『삼국사기』에서 계아태후로 기록하였는데, F-8에서 계아태후가 헌강왕의 딸이라고 명시하였다. 경순왕의 아버지는 효종인데, 진성왕이 그의 老成함을 보고, 헌강왕의 딸과 혼인시켰다.<sup>62)</sup> 신덕왕과 경순왕은 헌강왕의 사위이고, 경명왕과 경애왕은 헌강왕의 외손이다. 따라서 의성왕후와 계아태후는 헌강왕의 딸로서 신라말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지지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성왕후는 신라 하대의 3명의 박씨왕인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의 지지기반이었고, 계아태후는 경순왕의 지지기반이었다.<sup>63)</sup> 즉 헌강왕의 딸인 자성왕후와 계아태후는 왕위의 정통성을 보증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헌강왕 사후, 헌강왕의 형제, 서자, 사위, 외손을 중심으로 왕위가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헌강왕가의 왕통은 왕위의 정통성의 근거로 작용하였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지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 1〉 경문왕가의 왕위계승도



### Ⅲ. 헌강왕계의 왕위계승과 ‘義父母’

헌강왕 사후의 왕위계승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헌강왕가의 왕통이 왕위의 정

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조범환, 앞의 책, 2018, pp.49~57).

62) 『三國史記』 卷48, 列傳8, 知恩.

63) 신라 하대에는 왕위의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父系 못지않게 母系가 중시되었다. 이는 신라 하대에 ‘태후’의 위상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였다. 王母의 출신은 부계적 정통성이 미약할 경우에 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부계가 동일할 경우에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이현주, 『신라 종묘제의 변천과 태후』, 『사람』 66, 2018b, pp.183~184).

통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헌강왕의 서자인 요가 적법한 왕위계승권자로 인정받게 된 배경과 박씨인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한 배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효공왕의 모와 관련된 사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효공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E-1)에서 김씨, E-3)에서 길에서 야합한 여인이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E-2)에서 문자왕후라고 하였는데, 문자왕후는 헌강왕의 어머니이므로, 착오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즉위조와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효공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지 않다. 이에 헌강왕의 왕비와 효공왕의 생모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불국사 光學藏의 시주와 관련된 책와 文이 주목된다.

G-1) 불국사 光學藏①<註: 媛妃 權氏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데, 범호는 秀圓 또는 光學이다>의 왼쪽 벽에 모신 화상은 ②贈太傅憲康大王<註: 景文王의 元子이며, 太傅로 추증되었고 이름은 晷이다. 唐 乾符 을미에 즉위하였고 왕위에 있는 지 12년이다>인데, 脩媛 權氏가 받들고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하였다.<sup>64)</sup>

G-2) 故 全州大都督 金公<蘇判公 順憲은 大城의 아들이다>은 少昊氏의 아득한 후예이며 太常의 令孫이다. …… ③ 부인은 덕이 난초와 헤초처럼 향기롭고, 예는 마름이나 흰쑈처럼 깨끗했는데, 갑자기 남편[所天]을 잃었기에 죽은 목숨과 같았다. 풀죽은 마음을 쓸어안고 절개를 맹세하여 구름같은 머리털을 깎아 모습을 바꾸고 淨財를 회사하여 명복을 빌었다. ④ 中和 6년 병오년(886) 5월 10일에 삼가 석가여래불상 1탱(幀)에 수를 놓고, 받들어 소관공을 위해 장엄구로 고하는 것을 마쳤다(『王妃金氏<註: 金大城三世孫女也>爲考繡釋迦如來像幡讚并書』).<sup>65)</sup>

G-3) 불제자 어린 자매는 일찍이 선한 인연에 의지하여 귀족의 자제로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 비로소(시집가서) 婦德을 닦게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부부가 해로하는 일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닷새만에 돌아오겠다고 아름다운 기약은 날로 날고 멀어져만 가고, 三星[壽星]이 높다랗게 늘어서 있다가 저마다 흩어져 버렸으니 운우의 정은 참으로 허망한 꿈 일 뿐이요, 부형에 대한 그리움은 슬픈 정회를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夷絜 및 오라버니의 명복을 빌고자 며 3천 섬을 서울 동산 光學 寢陵과 불국사의 表訓·瑜伽·圓測의 三聖講院에 함께 회사합니다.<sup>66)</sup>

64) 崔英成, 『華嚴佛國寺毘盧遮那佛文殊普賢菩薩像讚并書』, 『崔文昌侯全集』2 (孤雲文集), 아세아문화사, 1999, pp.213~214.

65) 崔英成, 『王妃金氏<金大城三世孫女也>爲考繡釋迦如來像幡讚并書』, 앞의 책, 1999, pp.213~214.

G-4) 동생은 남의 며느리가 되어 재상가의 공이 되고, (저는) 婦道를 받들어 행하여 王家의 본보기가 될 줄 어찌 기약이나 했겠습니까? …… 과연 홀로 있으면서 망연 자실하여 죽은 듯이 지내지만, 그렇다고 임금의 곁을 떠나 정성을 아낄 수 없는지라 부질없이 비구니나 본받고자 할 따름입니다. …… 마침내 죽은 아우를 위해 불국사 光學藏에 명복을 빌고 稻穀 1천 섬을 경건히 바칩니다.<sup>67)</sup>

G사료는 최치원이 찬술한 것으로, 불국사에서 전승되어 오던 자료이다. G-1)은 수원 권씨가 헌강왕을 위해 화상을 제작하여 불국사 광학장의 왼쪽 벽에 모셨다는 내용이다. G-2)는 중화 6년, 즉 헌강왕 12년(886)에 소판공 김순헌이 죽었고, 이에 그의 부인이 남편(所夫) 죽음을 슬퍼하여 비구니가 되고, 재물을 회사하여 명복을 빌었다는 내용이다. 1740년에 활암동은이 편찬한 『불국사고금창기』에서는 “王妃金氏爲考”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전해진다.<sup>68)</sup> G-2)의 ③에서는 김순헌의 부인이 남편(所夫)을 위해 명복을 빌었다고 하였고, ④에서는 왕비김씨가 죽은 아버지(考)를 위해 석가여래상변을 바쳤다고 하였다. 즉 소판공 김순헌의 부인과 딸은 각각 그의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 명복을 빌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순헌의 딸은 왕비 김씨, 즉 헌강왕의 비인 의명부인이었을 것이다.

G-3)는 왕비 김씨가 죽은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위하여 벼 3천섬을 광학 침릉과 불국사 3성 강원에 회사한 내용이다. G-4)은 왕비 김씨가 죽은 여동생을 위해 稻穀 1천섬을 광학장에 바치고 명복을 빌었다는 내용이다. G-1)~4)에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료는 G-1)와 2)에 한정되고, G-3)과 4)는 특정 시기나 명칭을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최치원이 덧붙인 협주 ①에서 수원 권씨의 법호가 광학인 것으로 보아, 광학장의 명칭은 수원 권씨에 의해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69)</sup> 따라서 G-3)과 4)의 왕비 김씨 역시 G-1)과 동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G-1)의 ②에서 ‘贈太傅憲康大王’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헌강왕 사후였음을 알 수 있다.<sup>70)</sup>

G-1) 권씨의 경우, 9세기 말에 권씨의 성이 실재했다고 보기도 하고,<sup>71)</sup> 신라 왕실내

66) 崔英成, 『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 앞의 책, 1999, pp.238~239.

67) 崔英成, 『王妃金氏奉爲亡弟追福施穀願文』, 앞의 책, 1999, p.234.

68) 이문기는 “王妃金氏爲考”의 구절이 후대에 가필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오류 또는 조작으로 보았다(李文基, 『崔致遠 撰 9세기 후반 佛國寺 關聯資料의 檢討』, 『新羅文化』 26, 2005;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재수록, pp.148~154; 170~176).

69) 이문기, 앞의 책, 2015, pp.162~163.

70) 이문기는 최치원이 당에 2번째로 입당한 진성왕 7년(89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앞의 책, 2015, p.165).

71) 김창겸, 앞의 책, p.67, 각주 102).

의 김씨 족내혼을 숨기기 위해 최치원이 改書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72)</sup> 또한 G-1)의 수원 권씨와 G-2)의 왕비 김씨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sup>73)</sup> 양자를 동일인물로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G사료는 동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원권씨와 왕비김씨 모두 헌강왕의 비였을 것이다. 이에 왕비 김씨를 의명부인으로 비정하기도 하고, 이는 효공왕의 생모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74)</sup> 이와 관련하여 효공왕이 책봉한 태후의 기록이 주목된다.

효공왕은 2년(898), 봄 정월에 어머니 김씨를 높여 義明王太后로 삼았다.<sup>75)</sup>

헌강왕의 왕비는 C-3)의 『삼국사기』에서 懿明夫人이라 하였고, C-4)의 『삼국유사』에서 義明王后라고 하였다. ‘懿明’과 ‘義明’은 동음이의어로 동일인물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헌강왕의 비인 의명부인과 의명왕후, 효공왕의 모인 의명왕태후는 동일인물이었을 것이다. 다만 수원권씨를 왕비 또는 왕후였던 의명왕태후와 동일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요의 생모는 출신신분이 불명확한데다가 嶢 역시 적자가 아닌 庶子로, 이례적으로 태자가 된 경우였다. 정비인 왕후가 낳은 소생을 庶子로 칭하고, 궁 밖에서 양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요의 생모는 헌강왕의 정비인 의명부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헌강왕에게는 정비인 의명부인 외에 수원 권씨, 요의 생모 등 후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료에서 의명왕태후는 헌강왕의 正妃인 의명부인이었을 것이다.

헌강왕대에 헌강왕의 正妃인 의명부인이 王后가 아닌 夫人으로 칭해졌던 것은 왕위계승자인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sup>76)</sup> 신라 하대에는 왕의 배우자는 夫人으로 칭해졌고, 이들 중 별도의 冊封 절차를 거쳐 正妃인 왕후가 될 수 있었다. 또한 正妃인 왕후 책봉은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연동된 사안이었다.<sup>77)</sup> 따라서 의명부인은 嶢가 즉위함에 따라 비로소 왕태후의 칭호와 지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72) 이문기, 앞의 책, 2015, pp.182~183.

73) 진기웅, 앞의 책, 2010, p.199, 각주 17).

74) 효공왕의 생모와 의명왕태후를 동일인물로 본 견해와(李文基, 앞의 논문, 2007a, p.152 ; pp.186~190 ; 김수태, 앞의 논문, 2015, pp.256~258 ; 선석열, 앞의 논문, 2015, pp.145~147), 효공왕의 생모와 의명왕태후를 다른 인물로 본 견해로 나뉜다(이영호, 『통일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신라사학보』 22, 2011, pp.48~49 ; 金昌謙, 앞의 논문, 2011, pp.63~67 ; p.235).

75)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2년.

76) 李炫珠, 『新羅王室女性的稱號變遷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141~143.

77) 이현주, 앞의 논문, 2018a, pp.377~380.

의명부인은 헌강왕의 서자인 요가 즉위하자, 헌강왕의 正妃 자격으로, 현왕의 母后 지위인 왕태후로 책봉되었다.<sup>78)</sup> 즉 의명부인은 효공왕의 ‘生母’가 아닌 ‘義母’였고, 효공왕은 헌강왕비인 의명왕태후의 지지 하에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공왕은 즉위 후에 왕실혼인을 통해 왕비를 맞아들였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효공왕 3년(899), 봄 3월에 이찬 乂謙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sup>79)</sup>

효공왕은 이찬 예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의명부인과 예겸은 모두 헌강왕대의 인물로, 각각 헌강왕의 정비이자 시중이었다.<sup>80)</sup> 그러나 의명부인은 태자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예겸은 헌강왕 6년 시중에서 물러났다. 헌강왕 사후 그의 형제들인 정강왕과 진성왕대를 거쳐 이들의 영향력이 쇠퇴하였다.<sup>81)</sup>

이후 헌강왕의 서자인 曉가 즉위함에 따라 의명부인은 왕태후로서, 예겸은 왕비세력으로서 왕실일원의 중추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sup>82)</sup> 진성왕 9년(895)에 曉를 맞아들이고, 태자를 책봉한 후 진성왕 11년(897)에 왕위를 양도한다. 진성여왕이 曉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된 배경으로는 의명부인과 예겸세력의 압력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왕태후와 왕비의父라는 지위를 통해 왕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겸의 영향력은 신덕왕의 즉위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효공왕은 후계가 없이 죽었고, 신덕왕이 국민의 추대에 의해 왕으로 즉위하였다. 신덕왕의 왕위계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존재는 헌강왕비인 의명왕태후와 효공왕비이다. 실질적으로 효공왕비의父인 예겸과 예겸세력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다.

예겸은 F-1)에서 신덕왕의 아버지라고 하였으나, F-5)로 보아 사실상 신덕왕의 친부가 아닌 의부였음을 알 수 있다. ‘義父’는 ‘生父’가 아니지만, ‘父’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어머니의 남편인 ‘繼父’, 또는 처의父인 ‘丈人’, 또는 자구 그대로 ‘義로 맺은父子관계’의 의부가 이에 해당한다. 신덕왕의 비의 경우, 헌강왕의 딸이므로, 예겸은 계

78) 李炫珠, 앞의 논문, 2013, pp.141~143.

79)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3년.

80)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원년.

81) 헌강왕은 즉위 직후에 위홍을 상대등으로, 예겸을 시중으로 삼았는데(『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康王 원년), 헌강왕 6년에 예겸이 시중에서 물러난 것은 위홍이 예겸세력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전기웅, 앞의 책, 2010, p.117). 경문왕의 親弟인 위홍은 진성왕 2년(888)에 죽었는데, 죽은 후 惠成大王으로 추봉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다.

82) 예겸이 정치적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기는 효공왕에게 딸을 납비했던 무렵부터였을 것이다(李基東, 앞의 책, 1984, p.46). 의명왕태후의 지지 하에 예겸이 납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 또는 의부였음을 알 수 있다.

현강왕 사후, 현강왕의 형제, 서자, 사위, 외손을 중심으로 왕위가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강왕가의 왕통은 왕위의 정통성의 근거로 작용하였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지기반이 되었다. 효공왕은 현강왕의 서자로서 즉위하였고, 신덕왕은 현강왕의 사위로서 즉위하였다. 이들의 즉위는 실질적으로 ‘義父母’의 정치적 지원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의명부인은 ‘義母’로서 효공왕의 즉위를 지지하였고, 예겸은 ‘義父’로 신덕왕의 즉위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현강왕 이후, 왕위계승이 현강왕계의 협소한 범주를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왕위계승 양상 또한 부계친의 적장자 계승이 아닌 형제, 서자, 여서 계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현강왕 이후의 왕들은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왕위의 정통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신라 말의 골품제의 붕괴는 왕위계승에서도 노정되었다. 효공왕과 신덕왕의 즉위는 표면적으로는 경문왕가의 현강왕계 왕통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義父母’의 정치적지지 하에 왕위를 계승하고, 왕권을 유지한 것이었다.

#### IV.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의 상관성

신라 하대의 첫 왕인 선덕왕은 780년에 혜공왕이 피살되고, 즉위하였다.<sup>83)</sup> 선덕왕과 원성왕은 부자간의 계승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이 개입된 상황이었으므로 왕위의 정통성이 부족하였다. 선덕왕과 원성왕은 즉위 직후에 부모를 대왕과 태후로 추봉하였고, 이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sup>84)</sup> 또한 선덕왕과 원성왕은 오묘제를 개편하여 왕위의 정통성을 천명하였다. 선덕왕의 오묘제는 시조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성덕대왕개성대왕으로 구성되었고, 원성왕의 오묘제는 시조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흥평대왕-명덕대왕으로 구성되었다. 선덕왕은 외조부인 성덕왕의 신위를 五廟에 포함시켰고, 원성왕은 직계 4조를 추봉하고, 五廟에 親廟인 2묘만을 개편하였다.<sup>85)</sup> 선덕왕은 외조부를 통해 중대왕통을 계승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

83) 『三國史記』에서는 이찬 金志貞 등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김양상과 김경신이 진압하였으나, 혜공왕이 끝내 반란군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하였다(『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16년). 반면 『三國遺事』에서는 김양상, 즉 선덕왕에게 피살되었다고 하였다(『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84) 이현주, 앞의 논문, 2018a, pp.368~371.

을 확보하였고, 원성왕은 중대의 오묘제를 계승하고, 직계4조를 추봉하여 부계의 수직적 정통성을 수립하였다.

원성왕 이후,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은 원성왕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성왕 사후, 원성왕의 적장자인 인겸의 장자인 소성왕이 즉위하였으나, 당의 책봉이 신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였다. 이후, 소성왕의 적장자인 애장왕이 1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고, 애장왕이 어렸기에 숙부인 김언승이 섭정을 하였다.<sup>86)</sup> 애장왕 10년(809)에 왕의 숙부인 김언승과 김제용이 반란을 일으켰고, 애장왕을 죽이고 김언승이 왕위에 올랐다.<sup>87)</sup> 소성왕과 헌덕왕, 흥덕왕은 원성왕의 장자인 인겸과 성목태후의 아들들이다. 소성왕의 아들인 애장왕과 헌덕왕, 흥덕왕은 원성왕가의 인겸계로 부계적 지지기반이 동일하다. 왕위를 찬탈한 흥덕왕으로서는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장왕과는 다른 모계를 강조하여야 했다. 애장왕 9년에 소성왕비의 책봉문서를 요청하였던 것은<sup>88)</sup> 헌덕왕이 즉위와 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즉 부계가 동일하므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왕위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모계를 통해 차별적 위상을 부각하였던 것이다.<sup>89)</sup>

흥덕왕 사후, 원성왕의 4대손인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졌다. 왕위계승권은 인겸계에서 예영계로 넘어갔는데, 예영계의 3대손인 균정과 4대손인 제룡사이에 왕위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일어났다. 즉 예영계의 헌정의 아들인 제룡이 長孫으로서 계승할지, 3대손인 균정이 계승할지의 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균정이 죽었고, 왕위는 제룡에게 이어졌다. 희강왕이 즉위한 후, 김명에게 필박을 받아 자살했고, 김명이 민애왕으로 즉위하였다.<sup>90)</sup> 흥덕왕 사후의 왕위계승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예영계 후손 간의 다툼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균정과 제룡을 내세운 김명과의 대립구도로 전개되었다.<sup>91)</sup> <그림 2>는 신라 하대 원성왕부터 경순왕까지의 왕위계승도이다.

85) 이현주, 앞의 논문, 2018b, pp.177~179.

86)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원년.

8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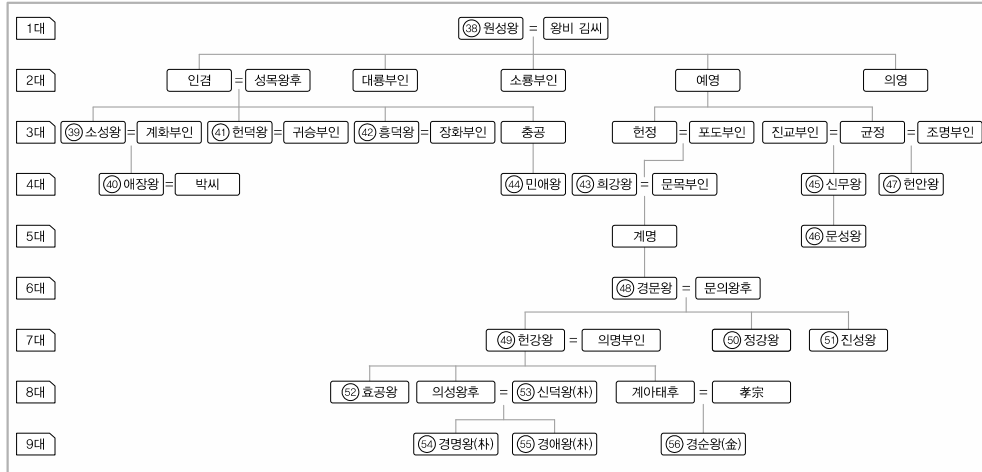
88)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9년.

89) 이현주, 앞의 논문, 2018a, pp.384~391.

90)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3년;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閔哀王 원년.

91) 尹炳喜, 『신라 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歷史學報』 96, p.67; 李基東, 앞의 책, 1984, p.165; 권영오, 앞의 책, 2011, p.154.

〈그림 2〉 신라 하대 원성왕~경순왕의 왕위계승도



김명은 인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이 처음부터 왕위쟁탈전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균정과 제룡에 비해 왕위를 계승할 정당성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흥덕왕 사후에 왕위가 인검계인 김명에게 계승되지 않고, 예영계 간의 왕위계승분쟁이 야기되었던 것은 헌덕왕비인 귀승랑이 태후로서 차기 왕위계승권에 간여한 결과였다. 귀승랑은 태후로서 왕위계승권자를 지정하고, 지지할 권한을 가졌던 것이다. 제룡이 왕위계승 후보자로 부상하였던 것은 예영계인 태후 귀승랑과 충공계인 妻 문목부인과 妻男 김명의 지지로 가능했다.<sup>92)</sup>

이처럼 헌덕왕의 왕권은 당의 책봉을 받은 성목태후, 즉 王母의 차별적 지위를 통해 강화되었다. 신라 하대의 태후는 왕위계승권자를 선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태후의 역할은 태후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신라 하대 태후의 지위와 권한은 그의 혈연적 계통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왕 중 동모제와 이모제로 왕위를 계승한 사례를 살펴보고, 왕모의 출신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同母弟로 왕위를 계승한 왕은 신라 상고기에는 첨해왕,<sup>93)</sup> 신라 중대에는 성덕왕,<sup>94)</sup> 경덕왕,<sup>95)</sup> 신라 하대에는 헌덕왕,<sup>96)</sup> 흥덕왕,<sup>97)</sup> 정강

92) 이현주, 『신라 하대초기 왕위계승과 태후의 역할』, 『여성과 역사』 29, 2018c, pp.239~241.  
 93)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沾解尼師今 元年, “一年沾解尼師今 助賁王之同母弟也”  
 94)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元年, “一年秋 聖德王立 …… 神文王第二子 孝昭同母弟也 孝昭王薨 無子 國人立之”  
 95)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景德王 元年, “景德王立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故得嗣位 妃伊浪順貞之女也”  
 9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元年, “一年 憲德王立 諱彥昇 昭聖王同母弟也”

왕,<sup>98)</sup> 진성왕,<sup>99)</sup> 경애왕<sup>100)</sup>이고, 異母弟로 왕위를 계승한 왕은 헌안왕 1인이다.<sup>101)</sup> 신라 하대에 同母弟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례가 다수인데, 다른 시기에 비해 하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王女출신의 王母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 상대에는 자비왕의 어머니인 아로부인은 실성왕의 딸이고,<sup>102)</sup> 진흥왕의 어머니는 지소부인으로, 법흥왕의 딸이었다. 신라 중대에는 王女출신의 왕모가 보이지 않는다. 신라 하대에는 선덕왕의 어머니가 성덕왕의 딸이다.<sup>103)</sup> 헌안왕은 신무왕과 조명부인의 아들이고, 조명부인은 충공, 즉 선강대왕의 딸이다. 또한 헌강왕, 정강왕, 진성왕의 어머니는 문의왕후, 헌안왕의 딸이다. 경명왕과 경애왕은 의성왕후의 아들이고, 의성왕후는 헌강왕의 딸이다. 경순왕의 어머니인 계아태후 역시 헌강왕의 딸이다. 이처럼 상고기의 자비왕, 중고기의 진흥왕, 하대의 선덕왕, 헌안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왕, 경명왕, 경애왕, 경순왕의 어머니, 즉 王母가 王女이다. 이처럼 신라 하대에 왕녀출신 왕모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헌안왕 이후, 王女출신의 王母의 비중이 매우 높다.

경문왕가의 성립은 경문왕과 왕녀인 영화부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고, 적통계승자인 헌강왕을 중심으로 헌강왕계의 형제, 자매, 서자, 사위가 계승하였다. 헌강왕 이후, 왕위계승이 헌강왕계의 협소한 범주를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왕위계승 양상 또한 부계친의 적장자 계승이 아닌 형제, 서자, 여서 계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헌강왕 이후의 왕들은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왕위의 정통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신라 말의 왕녀출신 왕후와 태후는 현왕의 정통성이 미약할 경우에 왕통 계승의 매개자로서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신라 하대왕실의 왕위계승은 嫡長子, 同母弟, 異母弟, 同母妹, 庶子, 女壻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대왕실 내의 근친혼에 기반한 왕위계승으로, 왕통은 신라 하대 전기는 원성왕가, 신라 하대 후기는 경문왕가로 구분된다. 원성왕가 내에서 3세대는 인검계와 예영계로 나뉘었고, 4세대는 예영계 내의 헌정계와 균정계로 나뉘

97)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원년, “一年冬 興德王立 諱秀宗 後改爲景徽 憲德王同母弟也”

98)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定康王 원년. 『三國遺事』王曆篇 정강왕조에서 “閔哀王之母弟”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민애왕은 헌강왕의 오기일 것이다.

99)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원년.

100)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景哀王 원년, “一年景哀王立 諱魏膺 景明王同母弟也”

101)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원년, “一年秋九憲安王立 諱誼靖 一云祐靖 神武王之異母弟也 母照明夫人 宣康王之女 以文聖顧命即位”

102) 『三國遺事』卷1, 王曆1, 慈悲麻立干.

10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宣德王 원년.

었다. 헌안왕에 이어 경문왕대에 헌정계와 균정계는 혼인을 통해 화합하였고, 이는 왕위계승으로 이어졌다.

경문왕에 이어 적장자로서 헌강왕이 즉위하였는데, 이후 헌강왕의 同母弟인 정강왕, 헌강왕의 同母妹인 진성왕, 헌강왕의 庶子인 효공왕, 헌강왕의 女壻인 신덕왕, 헌강왕의 外孫인 경명왕, 경애왕, 경순왕이 즉위하였다. 헌강왕은 경문왕과 헌안왕의 왕녀인 영화부인의 적장자였고, 왕태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경문왕은 女壻로서 왕위를 계승한 반면, 헌강왕은 왕과 왕녀의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즉 부계와 모계의 혈연적 정통성을 계승한 왕이었던 것이다. 이에 경문왕 이후의 왕들은 경문왕가의 정통왕위계승자인 헌강왕의 권위를 계승하여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는 왕위계승에서 부계친의 적장자계승을 지향하였으나, 하대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웠다. 하대왕실은 정치적으로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쟁탈전의 양상이 격화되었다. 또한 하대왕실은 男女王族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재산과 권위를 계승하고, 近親婚을 거듭하여 점차 특수한 권위를 창출하였다.<sup>104)</sup> 신라의 왕위계승은 부계와 모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중시하는 ‘양계적 친족구조(bilateral kindred)’를 기반으로, 지위와 재산의 계승은 부계와 모계 및 처계의 역량에 따라 선택적(kin selection)으로 이루어졌다.<sup>105)</sup> 하대왕실은 근친혼과 왕위계승에서 부계 못지 않게 모계의 혈연적 계통성이 중시되었던 ‘양계적 친족구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로 인해 경문왕가의 헌강왕계는 혈연적 정통성을 신성화하였다.

## V. 맺음말

본 논문은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권과 ‘왕실여성’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헌안왕의 왕비는 선강왕의 딸이고, 경문왕의 딸은 헌안왕의 딸로서 모두 왕녀이다. 헌안왕과 경문왕의 혼인과 즉위는 예영계와 인검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104) 義江明子, 앞의 책, 2011, p.180.

105) 이종서는 고려의 ‘양측적 혈연의식’과 이에 근거한 ‘양측적 친족조직’의 연원을 신라 하대 진골 귀족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라 하대의 박씨왕의 등장에 주목하고, 신라 하대에 ‘김·박’은 혈족집단을 표현하는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과 특권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이종서, 『신라 진골(眞骨) 성씨의 성립과 기능 변화-친족 관계의 구조 및 변동과 관련하여-』, 『역사와현실』105, 2017, pp.231~242). 본 논문에서 주목한 ‘양계적 친족구조’와는 다른 맥락의 논지 전개이지만, 신라 하대의 연장선상에서 고려의 친족구조를 파악한 관점은 동일하다. 後考를 기약하고자 한다.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에 이르기까지 격화되었던 예영계와 인겸계 간의 왕위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경문왕 이후 헌강왕이 嫡長子로 왕위를 계승하였고, 이후 헌강왕의 同母弟, 同母妹, 庶子, 女壻에게로 왕위가 계승되었다. 헌강왕은 왕과 왕녀의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즉 부계와 모계의 혈연적 정통성을 계승한 왕이었던 것이다. 이에 경문왕 이후의 왕들은 경문왕가의 정통왕위계승자인 헌강왕의 권위를 계승하여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헌강왕가의 왕통은 왕위의 정통성의 근거로 작용하였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지기반이 되었다. 또한 서자인 효공왕의 즉위와 박씨인 신덕왕의 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義父母’의 지지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명부인은 ‘義母’로서 효공왕의 즉위를 지지하였고, 예겸은 ‘義父’로 신덕왕의 즉위를 지지하였다.

신라 하대, 특히 헌안왕부터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왕녀 출신의 왕후 및 태후의 존재가 다수 보인다. 신라 하대의 태후는 왕위계승권자를 선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태후의 역할은 태후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신라 하대 태후의 지위와 권한은 그의 혈연적 계통성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또한 현왕의 정통성이 미약할 경우, 왕녀출신의 왕후와 태후는 왕통의 계승을 매개하고,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신라하대의 왕위계승은 부계와 모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중시하는 양계적 친족구조(bilateral kindred)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태후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文選』

### 2. 단행본

- 김수태,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金昌謙, 『新羅下代王位繼承研究』, 景仁文化社, 2003.  
김창겸,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 혜안, 2011.  
申潁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2015.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基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전기웅, 『新羅의 멸망과 景文王家』, 혜안, 2010.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조범환, 『중세로 가는 길목 신라 하대사』, 새문사, 2018.  
崔英成, 『崔文昌侯全集』 2 (孤雲文集), 아세아문화사, 1999.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83.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京: 東出版, 1974.  
義江明子, 『古代王權論』, 東京: 岩波書店, 2011.

### 3. 연구 논문

- 姜聲媛, 『新羅時代 反逆의 歷史의 性格』, 『韓國史研究』 43, 한국사연구회, 1983.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한국사연구회, 1982.
- 金昌謙, 『新羅 下代 孝恭王의 卽位와 非眞骨王의 王位繼承』, 『史學研究』 58·59, 한국사학회, 1999.
- 김수태, 『신라 현강왕대 국왕 친영례의 변화』, 『신라문화』 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 김창겸, 『신라 憲康王과 義明王后, 그리고 ‘野舍’과 孝恭王 - 특히 신라말 ‘非眞骨王’의 등장과 관련하여 -』, 『신라사학보』 22, 신라사학회, 2011.
- 김창겸, 『신라 憲安王의 卽位와 그 治積』, 『新羅文化』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 김창겸, 『신라 경문왕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제안』,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 文暉鉉, 『新羅 朴氏의 骨品에 대하여』, 『歷史教育論集』 13·14합집, 한국역사교육학회, 1990.
- 선석열, 『신라 하대 효공왕의 현강왕 서자설 재검토』, 『석당논총』 6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 역사학회, 1980.
- 李明植, 『新羅末』 朴氏王代의 展開와 沒落』, 『大邱史學』 83, 대구사학회, 2006.
- 李文基, 『최치원(崔致遠) 찬(撰) 9세기 후반 불국사(佛國寺) 관련자료의 검토』, 『新羅文化』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
- 이문기, 『新羅 孝恭王(曉)의 出生과 王室의 認知 時期에 대하여』, 『新羅文化』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7.
- 이문기, 『新羅 孝恭王(曉)의 太子冊封과 王位繼承』, 『歷史教育論集』 39, 한국역사교육학회, 2007.
- 이종서, 『신라 진골(眞骨) 성씨의 성립과 기능 변화-친족 관계의 구조 및 변동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5, 한국역사연구회, 2017.
- 李鍾恒, 『新羅의 下代에 있어서의 王種의 絶滅에 대하여』, 『法史學研究』 2, 1975.
- 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127, 대구사학회, 2017.
- 이천우, 『신라 경순왕의 즉위를 통해 본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 원리-혈연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李炫珠, 『新羅 王室女性의 稱號變遷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현주, 『신라 하대초기 왕실여성의 책봉과 의미』, 『신라사학보』 42, 신라사학회, 2018.
- 이현주, 『신라 하대초기 왕위계승과 태후의 역할』, 『여성과 역사』 29, 한국여성사학회, 2018.
- 이현주, 『신라 종묘제의 변천과 태후』, 『사림』 66, 수선사학회, 2018.
- 張日圭, 『응림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 『신라사학보』 22, 신라사학회, 2011.
-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朴氏王家』, 『韓國民族文化』 3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 全基雄,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역사와 경계』 16, 경남사학회, 1989.
- 조범환, 『新羅末 朴氏王의 登場과 그 政治의 性格』, 『歷史學報』 129, 역사학회, 1991.
- 吳 星, 『新羅 元聖王系의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 尹炳喜, 『신라 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歷史學報』 96, 역사학회, 11982.
- 주보돈, 『통일신라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1994.
- 최의광, 『新羅 下代 王位繼承 樣相과 性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하정룡, 『新羅 上代 王位繼承 研究-王室內 近親婚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5.

■ 논문투고일 : 2020. 5. 17 ■ 심사완료일 : 2020. 6. 17 ■ 게재확정일 : 2020. 6. 17

■ Abstract

## On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in last age of Shilla and the “the Royal Woman”

Lee, Hyun-ju\*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in last age of Shilla and the “the Royal Woman”.

King Heonan (憲安王) ‘Queen and King Gyeongmun (景文王)’ Queen are all of whom are King's daughters, Princesses. The marriage and enthronement of King Heonan and King Gyeongmun meant the combination of the Yeyeong ‘lineage and Ingyem’ lineage, which was intensified meaning an end to the conflict over the throne between the Yeyeong and Ingyem. King Heongang (憲康王), the only grandson of King Heonan and son of King Gyeongmun, was the legitimate heir of the Yeyeong ‘lineage (禮英系) and Ingyem’ lineage (仁謙系).

After the death of King Heongang, the throne was succeeded by his brothers, his sister, sons-in-law, and only son-in-law. In other words, the royal lineage of the King Heongang lineage served as the basis for the legitimacy of the throne and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the right to the throne.

Also from King Heonan (憲安王) to King Gyeongsun (敬順王), many of the royal woman are King's daughters, the Princesses.

The empress in last age of Shilla was able to influence the selection of a successor to the throne, and her role was a means to enhance her status. In addition,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Empress of Shilla were justified by his pedigree.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queen and the empress supported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ion if the legitimacy of the present king was weak. In addition, if the legitimacy of the royal authority was insufficient, the queen and the empress'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served as a medium for the succession of the royal power.

---

\* Lecturer, Ajou University

**Keyword** ● King Heonan, King Gyeongmun, King Heongang, Princess, Queen, empress, succession of the throne, Royal Woman, bilateral kindred, kin selection